

국제금융시장 3월 동향 및 4월 전망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심 한 용 (hyshim@kdb.co.kr)
박 지 혜 (jh5702@kdb.co.kr)

- ◆ (환율) 3월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경제심리 악화에 따른 원화 약세로 상승, 4월은 美 상호관세 실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1,400원 중반대에서 등락 전망
- ◆ (금리) 3월 미국 금리는 하락한 반면 일본은 금리인상 기대, 유로존은 독일 대규모 부양책 등으로 상승, 4월 미국 금리는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 전망되며 일본과 유로존은 상승 예상
- ◆ (주가) 3월 주요국 증시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장벽 확대 등으로 하락, 4월 주요국 증시는 미국의 상호관세 본격화와 경기둔화 가능성 제기 등으로 부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전망

□ 3월 주요 경제·금융 동향 : 연준과 일본은행은 기준금리 동결, 유로존은 정책금리 25bp 인하 결정

- 美 연준은 FOMC(18~19일)에서 2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4.25~4.50%)
 - '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였으나, 견고한 고용상황** 등으로 경제가 견조한 속도의 확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평가 아래 기준금리 동결 결정
 - * 美 경제성장률 전망치('24.12월 → '25.3월, %) : ('25년) 2.1 → 1.7, ('26년) 1.8 → 1.8
 - ** 美 비농업고용 전월비(천명) : 12('24.10월) → 227(11월) → 256(12월) → 143('25.1월) → 151(2월)
 -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을 고려하여 금리인하 지속에 대한 신중론을 표명하였고, 점도표상 금년 중 2회 금리인하 전망을 유지
- ECB는 통화정책결정회의(6일)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 (수신금리 2.75% → 2.50%)
 - 역대 경기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정책금리 인하 결정
 - * 유로존 경제성장률(% , qoq) : 0.3('24.1Q) → 0.2(2Q) → 0.4(3Q) → 0.2(4Q)
 - ** ECB 경제성장률 전망치('24.12월 → '25.3월, %) : ('25년) 1.1 → 0.9, ('26년) 1.4 → 1.2
 - 라가르드 총재는 글로벌 무역장벽이 전세계 경제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향후 금리인하는 데이터에 따라 실시할 것임을 강조
- BOJ는 금융정책회의(18~19일)에서 기준금리 동결 (단기금리 0.50%)
 -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관측되고 최근 소비자물가* 또한 상승 중이나, 美 관세 정책 등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 동결 결정
 - * 日 소비자물가 상승률(% , yoy) : 2.3('24.10월) → 2.9(11월) → 3.6(12월) → 4.0('25.1월) → 3.7(2월)
 - 우에다 총재는 경기 회복세와 물가상승률의 오름세가 관측될 경우, 추가 금리 인상을 통해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

□ '25.4월 주요 국내외 경제·금융 이벤트

-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 : 트럼프發 관세 본격화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률*(10일) 반등 여부 등이 연준의 금리인하 재개 시점에 영향을 미칠 전망
 - * 美 소비자물가 상승률(% yoy) : 2.6('24.10월) → 2.7(11월) → 2.9(12월) → 3.0('25.1월) → 2.8(2월)
- 소비심리* 위축으로 미국의 경기둔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소비자심리지수 반등 여부 등이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킬 전망
 - * 美 3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는 57.9로 '22.11월(56.8) 이래 최저치를 기록, CB 소비자신뢰 지수는 92.9로 '21.2월(91.3) 이래 최저치, 전월대비 하락폭(↓7.3p)도 '21.8월 이래 최대폭을 기록
- 한국, 금통위(17일) :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으로 2월에 이어 연속 금리인하 가능성도 제기되나, 국내 정치 불안정 지속, 美 관세정책, 높은 수준의 변동성을 보이는 원/달러 환율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동결을 예상
 - * 한은 경제성장률 전망치('24.11월 → '25.2월, %) : ('25년) 1.9 → 1.5, ('26년) 1.4 →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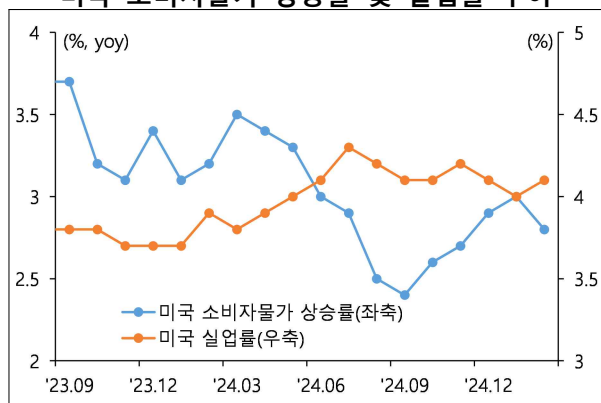
□ 주요 금융지표 동향 및 전망

- (환율) 3월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상승, 4월은 美 상호관세 실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1,400원 중반대에서 등락 전망
 - 3월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發 정책 불확실성 증대와 미국 경기둔화 우려 등에 따른 달러화 약세에도, 국내 정치 불안정과 경제심리* 악화 지속 등으로 상승
 - * 경제심리지수(P, 기준치=100) : 93.0('24.11월) → 83.3(12월) → 86.7('25.1월) → 90.2(2월) → 87.2(3월)
 - 4월 원/달러 환율은 무역수지* 흑자 전환 등에도 불구하고, 美 상호관세 시행과 국내 정치 불안 장기화 가능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1,400원 중반대에서 등락 전망
 - * 국내 무역수지(억달러) : 31.7('24.10월) → 55.9(11월) → 64.9(12월) → △18.6('25.1월) → 41.5(2월)

달러 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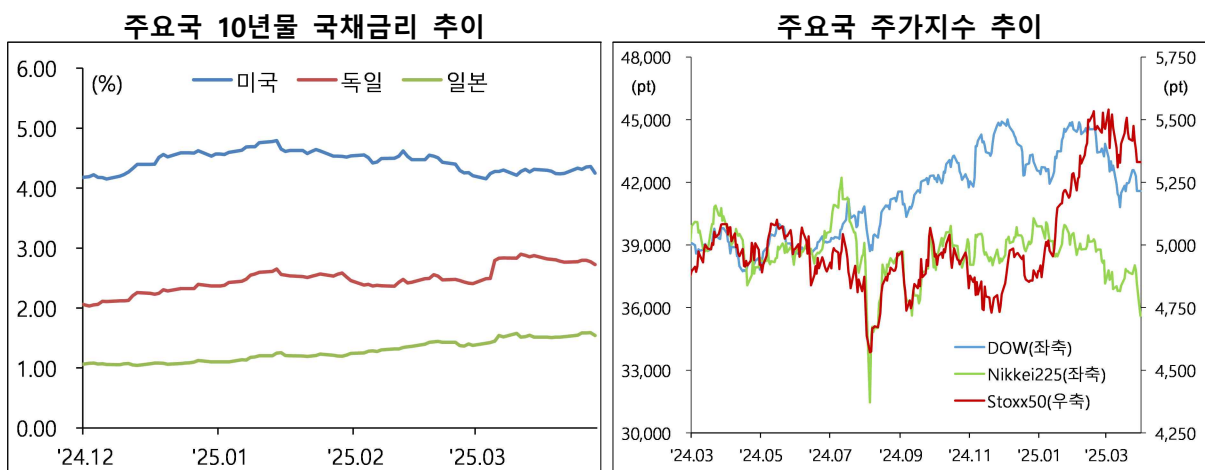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실업률 추이



	'23년말	'24년말	'25.2월말	'25.3월말	전월대비
원/달러 환율	1,294.5	1,472.5	1,427.1	1,469.0	+2.9%
달러 인덱스	101.47	108.09	106.63	103.99	△2.5%

자료 : 연합인포맥스, Bloomberg

- (금리) 3월 미국 금리는 하락한 반면 일본과 유로존은 상승, 4월 미국 금리는 경기 둔화 우려로 하방 압력을 받을 전망이며 일본과 유로존은 상승 예상
 - 3월 미국 금리는 경기둔화 우려와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美 국채투자 수요 증가로 하락, 유로존은 독일의 대규모 재정부양책* 발표 및 국채 발행량 증가 전망으로 상승, 일본 금리는 우에다 BOJ 총재의 금리인상 지속 시사**로 상승
 - * 총 5,000억 유로 규모의 인프라 투자 기금을 편성하며 국방비의 부채한도 규정 적용을 제외
 - ** 중의원 재무금융회의(3.26일)에서 식품가격 오름세에 따른 서비스물가 상승으로 경제 전반의 인플레이션 확산이 관측될 경우 금리인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발언
 - 4월 미국 금리는 경기둔화 가능성에 따른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 확대 등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전망이며, 일본은 높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BOJ 금리인상 기대로 상승 예상, 유로존도 독일의 국채 발행 증가 가시화로 오름세 지속 예상
- (주가) 3월 주요국 주가는 트럼프發 관세장벽 확대 등으로 하락하였고, 4월은 미국의 상호관세 본격화 등으로 부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전망
 - 3월 주요국 주가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3.12일), 수입차(3.26일) 관세부과 실시, 4.2일 예정된 상호관세 우려 등에 따른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대로 하락 시현
 - 4월 주요국 주가는 미국의 상호관세 본격화와 경기둔화 가능성 제기, BOJ의 금리 인상 기대 등으로 하락이 예상되나 기술적 반등으로 하락 폭이 제한될 가능성



	'23년말	'24년말	'25.2월말	'25.3월말	전월대비
미국채 10y	3.897	4.533	4.431	4.190	△5.4%
독일채 10y	1.979	2.367	2.470	2.727	+10.4%
일본채 10y	0.623	1.101	1.430	1.510	+5.6%
다우존스	37,385.97	42,573.73	43,428.02	41,583.90	△4.2%
유로 Stoxx 50	4,521.47	4,869.28	5,474.85	5,331.40	△2.6%
Nikkei 225	33,169.05	39,894.54	38,776.94	35,612.97	△8.2%

자료 : Bloomberg